

대한민국 우수축제 첫 등극

임실N치즈축제, 유망축제 1년만에 등급상향·1억7000만원 확보

임실N치즈축제가 개최한 지 불과 4년 만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2019년 우수축제 첫 등극하는 쾌거를 이뤘다.

임실N치즈축제는 지난 해 유망축제로 선정된 데 이어 단 일년만에 한 단계 상승하는 이례적인 기록을 세우며, 저력을 과시했다.

군은 지난 해 네 번째로 치러진 임실N치즈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2019문화관광축제'에서 우수축제로 선정됐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임실N치즈축제는 2017년 제3회 축제인 '2018문화관광축제'의 유망축제로 첫 진입, 단 기간에 정부가 지원하는 대표축제로 인정받은 데 이어 전국 축제 중 보기 드물게 일년만에 등급을 올려 우수 축제로 명성을 다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문화관광축제에 총 41개를 선정했다. 도내에서는 총 6개 축제가 선정된 가운데 김제지평성축제와 무주반딧불 축제와 각각 글로벌, 대표축제로 선정됐으며, 임실N치즈축제가 우수축제로 이름을 올렸다. 순창장류축제와 고창모양성제, 완주와일드푸드축제는 각각 유망축제로



임실N치즈축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수축제로 쾌거를 이뤘다.

뽑혔다. 임실N치즈축제는 전북도가 시군을 대상으로 한 축제평가에서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어 도비 8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번에 문화관광축제 우수축제로 선정되어 국비 9000만원의 국 도비 인센티브를 따내며 성공적인 2019년 임실N치즈축제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심 민 군수는 "임실N치즈축제를 임실군 대표축제로 만든 지 4년 만에

정부가 엄선하는 우수축제로 선정되어 무척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성공적인 축제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해 축제의 부족함을 보완하여 올해는 더욱 더 완벽한 축제를 만들겠다"며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열정을 가지고 성공축제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든다

지역아동센터 건립·결혼축하금·대학 진학 축하금

순창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간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1.80명으로 2년 연속 도내 1위를 선점한 바 있는 순창군은 올해도 타이틀 확보를 위해 육아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에 적극 나선다. 올해 북흥면 지역아동센터 조성과 더불어,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아이돌봄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북흥면에는 지난해 공립어린이집 개원에 이어 올해는 지역아동센터와 작은도서관, 내년에는 청소년문화의집 건립도 예정되어 있어, 지역사회가 반기운 기색을 나타내고 있다. 기반시설 조성 뿐 아니라 지원대상자 기준 완화로 아이돌봄 서비스도 확대해 육아 서비스를 개선할 방침이다. 순창군은 이외에도 결혼장려금과 대학 진학 축하금 등 현금 지원도 나선다. 결혼축하금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한명이라도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하고 있고, 혼인 신고 이후 부부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이상 만 39세이하의 남녀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총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 후 100만원, 1년 경과 후 200만원, 2년 경과 후 200만원으로 2년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은 궁극적으로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타 지역의 인구를 유입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육아 관련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해 민선 7기 비전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2019년을 식수복지실현 원년으로"

남원시가 올해를 식수복지 실현 원년으로 설정한 가운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낡은 상수도관 교체, 농촌마을 광역상수도 급수 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는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수도시설 운영 평가에서 지난 2015년과 2016년 우수상을 받았으며, 2017년에도 전국 최우수 시설로 선정되었다. 이와 함께 누수다발지역인 신촌동과

주천 용담, 금지 상귀마을(6.1km)의 상수도관을 10억원을 들여 교체하고,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읍면지역 34개 마을에는 광역상수도 급수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의 건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율령정수장은 하루 1만5,000톤의 물을 정수할 수 있는 급속여과 방식 정수시설로 1974년도에 시설되어 시설 개선이 시급한 상황으로, 개량사업에

268억원을 투자해 올 상반기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개량사업이 완료되는 2022년부터는 전국 최고의 정수시설로 시민들에게 더 많고 더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이 기재부, 환경부, 국회를 수차례 방문 사업추진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예산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 봉황인재학당이 신입생 150명 상반기 수업을 개강한다

임실봉황인재학당 수업 개강

임실 인재양성의 산실로 자리매김

개원 2년차를 맞이한 임실 봉황인재학당이 7일 신입생 150명을 대상으로 2019년도 상반기 수업을 개강한다.

지역의 부족한 교육 인프라로 인한 인구유출 문제 해결과 우수인재 발굴 육성을 위해 지난해 1월 개원한 봉황인재학당은 국내 유명대학교와 수도권 강사들의 수준 높은 강의와 학습지도로 재원생들의 성적향상 및 수업태도 개선, 자기주도 학습 역량강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2019년도 2년차를 맞은 봉황인재학당은 올해에는 전년도에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각 학년별로 심화반, 실력반, 기초반을 운영해 기본 개념부터 차근차근 심화반까지 맞춤형 교육으로 우수학생 양

적 질적 확대를 도모하며, 연 4회 정기평가(모의평가)를 실시해 재원생들의 성적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이밖에도 인성교육, 효율적인 학습방법, 진로탐색 등의 특강과 학생과의 1:1 대면 컨설팅 등을 실시해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맞춤형 심화학습 운영으로 학업능력 향상 및 우수인재 발굴 육성에 최선을 다 해 나갈 계획이다.

심민 애향장학회 이사장은 "배움의 보금자리인 임실봉황인재학당을 앞으로도 우리 임실의 아들·딸들이 안락하고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이끔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의의회 새해 첫 임시회 개최

임실군의의회(의장 신대용)는 지난 4일 본회의장에서 심민 임실군수를 비롯한 국실과원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85회 임시회를 열고, 15일까지 12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기해년을 맞아 의사운영의 첫 장을 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 한해 군정 주요현안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가 군의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군정 운영의 새해 밑그림을 그리는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다.

또한 황일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실군의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2건,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3건, 청원 1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신대용 의장은 개회사에서 "2019년에는 지난 한해 마련한 도약의 발판을 추춑돌 삼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생활의 안정을 통해

하나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동료의원들에게는 "이번 회기가 금년도 군정운영의 방향을 점검하게 될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의 심의가 계획되어 있는 만큼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등 의회 본연의 임무를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주요업무보고 일정으로는 ▲ 1월 7일 : 기획예산실, 행정지원실, 재무과, 문화관광체육과, 주민복지과 ▲ 1월 8일 :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체육청소년과 ▲ 1월 9일 : 건설과, 안전관리과, 환경보호과, 상하수도과, 농업축산과 ▲ 1월 10일 :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시설운영사업소 순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시, 예산 시민함께 공유

남원시 예산통아리 '온새미로'는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과 지방재정 분권정책의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첫 단추로 한눈에 보는 남원시 살림살이 리플릿을 제작해 2019년 시민에게 다가가는 소통의 행정을 시작했다.

리플릿 앞면에는 1995년부터 2019년까지의 예산현황, 채무현황, 가능별 예산과 뒷면은 2019년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남원시는 지방자치가 시작 된 1995년도 1,422억원에 불과했던 예산이 매년 증가해 2019년 7,312억원으로 5,89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1998년도(민선 2기) 511억원에 육박했던 채무는 내실있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을 통해 2017년 제로화했다.

온새미로 관계자는 "지방재정 자립과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고민한 끝에 법고창신(法古創新)의 마음으로 시 살림살이에 대한 역사와 발전취를 리플릿으로 제작하게 되었다"며, "리플릿은 시청직원들에게 배포하고 관내 멀티전광판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적극적인 행정참여를 위한 콘텐츠로 활용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목욕장 업소 업무협약

남원시는 지난 4일 관내 수정탕 등 15개 목욕장 업소와 노인목욕권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민선7기 공약인 행복플러스 노인복지서비스 강화의 일환으로,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노인 목욕권을 지원하는 것으로 15개 목욕장 업소와 목욕권 사용 및 요금후불제 정산 등에 관해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은 이환주 남원시장과 15개 목욕장 대표자, 시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목욕장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협조부탁의 말씀과 업무협약서를 교환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노인 목욕권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예산 4억2100만원을 편성해 올해부터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8천여명에게 4,000원권 목욕권을 년 10매씩 지원하며, 목욕권은 분기별로 선정하고 2분기 대상자는 3월중 해당 읍면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에서는 어르신들이 외면 받지 않는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남원시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